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3월 13일
제1887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루카 9,34-35)



〈거룩한 변모〉, 프라 안젤리코,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이탈리아

사순 제2주일 (다해)

제 1 독서 창세 15,5-12.17-18 | 하느님께서서는 충성스러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다.

화답송 시편 27(26)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제 2 독서 필리 3,17-4,1 (또는 필리 3,20-4,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루카 9,28ㄴ-36 |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그때에 ²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²⁹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었다.

³⁰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³²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³³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³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³⁵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³⁶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통회의 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복음 묵상

루카 복음서는 거룩한 변모 사건에 앞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9,18-21 참조), 수난과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예고(9,22 참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9,23-27 참조)을 전해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순서는 마르코 복음과 마태오 복음의 전개 구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통하여 당신의 정체를 알려 주시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고난을 겪는 메시아의 정체가 제자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변모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제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입고 있던 옷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9,29 참조). 예수님께서 변모 사건으로 당신의 영광, 곧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드러날 순간을 미리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모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9,31)은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변모로 드러난 예수님의 신분을 입증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영광이 우리가 이미 누리거나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의 빛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필리 3,21 참조). <정진만 안젤로 신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9-10)



1. 씨 뿌리기와 수확

바로 성인은 기회(kairós), 곧 미래 수확을 기대하며 선의 씨앗을 뿌리기에 적절한 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적절한 때’란 무엇입니까?

사순 시기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소유가 아니라 내어 줌에서, 축적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나누는 일에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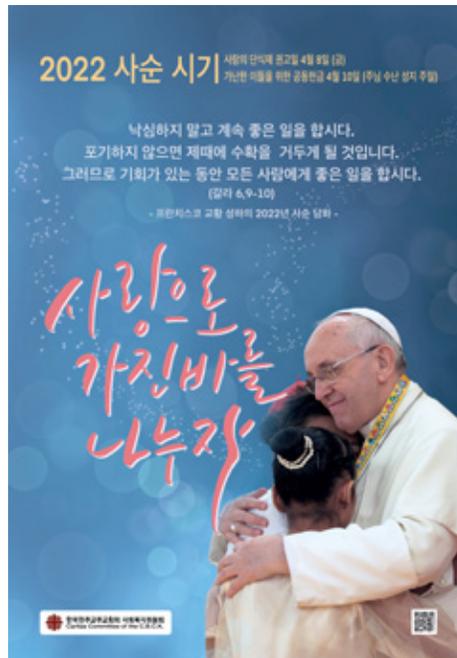
처음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크나큰 관대함으로 “계속해서 인류에게 좋은 씨를 뿌려 주십니다”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54항).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살아 있고 힘이 있는” (히브 4,12)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선물에 응답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수확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뿌린 선의 첫 열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소소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선익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이 지닌 숨겨진 힘에 대한 희망으로, 다른 이들이 수확할 열매들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송고한 일입니다” (『모든 형제들』, 196항).

하느님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고 드높여 줍니다. 우리 삶과 행동의 무르익은 열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 (요한 4,36)이고, ‘하늘의 보물’ (루카 12,33; 18,22 참조)입니다. 부활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시는 위대한 빛입니다.

2.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시대에 구원의 씨앗을 심으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위대한 희망”으로 지상의 희망에 생기를 줍니다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Spe Salvi], 3항, 7항 참조).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오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이사 40,31).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1)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은 위험한 망상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우리 개개인과 사회의 연약함을 더욱 인식시켜 주었다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 믿음에서 오는 위안을 체감하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삶의 악을 뿌리 뽑읍시다.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육신의 단식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을 강인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참회와 화해의 성사 안에서 용서를 청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탐욕에 맞서 싸웁시다.

3.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농부의 마음을 달라고(야고 5,7 참조), 선행을 베푸는 데에 인내하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꾸준히 청합시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악의 유혹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이사 55,7)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이 회개의 때에 하느님 은총과 교회의 친교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단식은 토양을 마련하고 기도는 물을 대며 자선은 비옥하게 만듭니다. 모든 이를 향한 형제애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2코린 5,14-15 참조)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고, 하늘 나라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1코린 15,28)이 되실 때입니다.

구세주를 태중에 품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 곰곰이 되새기신” (루카 2,19)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총을 얻어주시기를 청합시다.

성소국 주최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알링턴 교구 성소국 주최로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생활과 기도하는 법을 경험하게 하는 4박 5일 여름캠프에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Quo Vadis SUMMER CAMP

July 10-14, 2022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FIAT SUMMER CAMP

July 17-21, 2022

장소

Mount St. Mary's University and Seminary, Marylan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한달 동안
- 참가자 등록 마감 : May 9 (캠프 참가자로 당첨된 학생)
- 참가비 : \$250 (성소후원회 전액 장학금 지급)
- 문의 :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Sign up for the **Quo Vadis and FIAT Camp Registration Lotteries**

신청하기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 1 동해안 산불 화재민을 위한 2차 현금**
 - 동해안 산불로 수많은 화재민이 속출하였고, 본당 보좌 신부님 아버지 농막과 농장도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2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
 - 주님수난 40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 하며 기도와 자선, 화생의 살이기를 기도합니다.
- 3 안 다니엘 수녀님 환영 미사**
 - 수녀님 환영 미사 : 3월 13일(일) 오전 10시
- 4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받습니다. 알링턴 교구의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5 단체장 회의**
 - 일시 : 3월 13일(일) 오전 11:40 (A-1,2)
- 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3월 13일(일) 오후 1시 (B-3,4)
- 7 성령 기도회**
 - 일시 : 3월 15일(화) 오후 7:30 미사 후 (도서실) 매주 화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 8 하상 성인학교 2022년 봄학기 수강 안내**
 - 봄학기 일정 : 3월 15일(화) - 6월 17일(금)
 - 등록 접수 : 3월 6일(일), 13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문의 : 김명희 울리안나 교장 (703) 217-2775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9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 10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B-3,4)
- 11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10시 미사 후 (A-1,2,3,4)
- 12 꾸르실로 제347차 울뜨레아**
 - 일시 : 3월 25일(금) 오후 7:30 미사 후 (A-1,2)
- 13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 26일(토) 오후 4시
 - 대상 : 행동 단원, 협조 단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14 사순 특강 안내**
 - 일시 : 3월 27일(일) 오후 12:30 - 14:30
 - 강사 : 이상훈 요한사도 신부님(LA 라파엘 성당 주임)
 - 주제 : 가장 하느님다우신 하느님 / 예루살렘의 예수
 -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15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교구내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 본당 부활 판공성사 : 3월 22일(화) 오후 3시 - 5시, 저녁 7시(미사) - 9시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 16 CYO WorkCamp Contractor 모집**
 -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인원 : 3명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 17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 2022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학사 일정(Academic Schedule) :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6주간 월-금(Monday - Friday), 9:30am - 3:30pm
 - 학비(Tuition) : 등록비(\$50, 환불안됨)가 포함된 비용 첫째 자녀 - \$690 / 둘째 - \$670 / 셋째 - \$650
 - 등록 안내 : **선착순 160명**
3월 19일(토) 오전 8시부터 시작 (체육관)
직계 가족만 등록 가능
※ 사무실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9 부활 판공성사표, 세계 주교 시노드 설문지 발송**
 - 각 가정에 부활 판공성사표와 세계 주교 시노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지는 작성 후 우편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알링턴 교구 여름캠프

현재 9학년 ~ 12학년 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주점을 통해 4월 13일에 참가자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웹주보에서 확인하세요

3월부터 모임 재개

3월부터 모든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단, 당분간 미사와 모든 모임에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

“그가 절된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스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5)

3월 3일(목) - 4월 13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 성 토요일(4월 16일)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3월 6일(사순 제1주일)

주일헌금	\$ 6,188.00
교무금	\$ 17,675.00
교무금(신용카드)	\$ 3,490.00
재의 수요일 2차 현금	\$ 4,059.00
주일 2차 현금	\$ 3,071.00
감사 헌금	\$ 740.00
온라인 봉헌	\$ 2,440.00
합계	\$ 37,663.00

♥ 주일헌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17일(목) 오후 5:00-6:00
3월 18일(금) 저녁 8:00-9:00
3월 20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2) - 고대 신전이 전하는 이야기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2px;">화, 금</th> <th style="padding: 2px;">수</th> </tr> <tr> <td style="padding: 2px;">• 6:00 AM</td> <td style="padding: 2px;">•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